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3.10.1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(유럽통계청) EU, '21년도 R&D에 총 3,310억 유로 투자(10.4)
 - EU의 R&D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6.9%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.27%를 기록함
 - 전체 R&D 지출 중 기업부문은 65.9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고등교육 부문이 21.76%, 정부 부문이 11.64%로 그 뒤를 이음
- 유럽의원, Horizon Europe 차기 프로그램 예산 2,000억 유로 요구
 - 유럽의회 엘러(Ehler) 의원과 카르발로(Carvalho) 의원은 '28년 시작될 EU의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미래 도전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HE 예산의 2배를 웃도는 2,000억 유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
 - EU 연구 프로그램 예산 책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럽의회는 더 높은 예산을 요구하고, EU 회원국들은 예산 절감을 원하며, 집행위는 그 둘의 중재안 정도를 제안하는 편임
 - 955억 유로로 최종 책정된 HE 예산의 경우, 의회는 1,200억 유로를 요구하였으며, EU 회원국들은 800억 유로를 주장한 바 있음
 - 현재 집행위원회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할 예정에 있으며, 아직 집행위의 입장은 불투명한 상태
 - ※ 한편 HE 당시 집행위의 전문가 그룹은 HE 예산으로 기존 H2020 예산의 2배인 1,540억 유로를 제안한 바 있으며,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데 최소 1,2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
- 이스라엘, 전쟁으로 인해 Horizon 프로젝트 등 연구 활동 지연 및 중단 위기
 - 다수의 이스라엘 ERC 수혜자들은 젊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군대로 소집되고 외국 연구자들이 귀국하는 등 많은 연구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전함
 - 이스라엘은 전체 Horizon 프로젝트 5% 이상에 참여하고 있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험에 처해있음
 -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ERC 공모 마감 기한을 늦추는 등 EU에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,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쟁 이후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전함
- (기타) ▲유럽의회 산업위원회, 사실상 원자력 포함한 기후중립산업법(안)에 정파간 합의(10.12) ▲유럽의회,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기술(STEP) 계획에 대한 입장 채택 (10.10) ▲(연구평가개혁) 위트레흐트 대학 세계대학순위에서 탈퇴(10.12) ▲집행위, '유럽 정책을 위한 과학(Science for Policy)의 미래 보고서 발간 ▲집행위, MSCA Cofund 공모에 9,660만 유로(10.11) ▲유럽대학연합(EUA), '23년도 유럽 대학 자율성 순위 발표